

김종길 비평의 연속성 연구

- 시 이론의 전개 과정을 중심으로

오 형 업*

차 례

- | | |
|------------------------|---------------------------|
| I. 서론 | IV. 진실의 시적 언어화 - 「진실과 언어」 |
| II. 기존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 V. 결론 |
| III. 현대성과 역사 의식 - 「시론」 | |

I. 서 론

김종길은 1947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門」이 당선되어 등단한 이후 「성탄제」(1969), 「황사현상」(1986), 「천지현황」(1991), 「달맞이꽃」(1997) 등의 시집을 간행하면서 이미지의 명료성과 고전적 품격에서 비롯되는 정신적 연결성을 조화하여 독특한 시 세계를 확립한 시인으로서 높이 평가된다.¹⁾ 한편

* 수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겸임교수

1) 김종길 시에 대한 논의로 다음의 글들을 참고할 수 있다.

김홍규, 「세계 내적 초월의 비전과 절제」, 『하회에서』, 민음사, 1977.

유종호, 「점잖음의 미학」, 『동시대의 시와 진실』, 민음사, 1982.

김우창, 「감각과 그 기술」, 『지상의 척도』, 민음사, 1981.

이남호, 「명징성과 연결성」, 『천지현황』, 미래사, 1991.

최동호, 「유가적 인본주의와 현대적 고고」, 『삶의 깊이와 시적 상상』, 민음

김종길은 영문학자로서 그리고 현장 비평가로 활약하여 『시론』(1965), 『진실과 언어』(1974), 『시에 대하여』(1986), 『시와 시인들』(1997) 등의 시론집을 간행하면서 시 비평 분야에서 우리 비평사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김종길의 비평 작업이 수행한 공적은 1950년대 중반 이후 우리 나라에 도입되어 큰 영향을 끼친 영미 신비평을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실제 비평에 긴밀히 적용하는데 주로 초점이 맞춰진다. 시론사적 관점에서 볼 때, 신비평의 수용과 그 적용의 성과로서 우리는 김기림의 『시의 이해』(1950)와 그 연장선에 놓인 김종길의 『시론』(1965), 송옥의 『시학평전』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기존 연구의 성과를 보완하기 위해 제1시론집 『시론』과 제2시론집 『진실과 언어』 사이의 내재되어 있는 연속성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김종길 시론의 전개 과정을 규명함으로써 김종길 비평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²⁾ 여기서 주로 고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시 이론의 영역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월평, 작품론, 시인론 등의 실제 비평을 중심으로 김종길 비평이 연구되어온 양상을 보완함으로써 기존 논의가 간과한 김종길 비평의 내면적 측면을 밝혀보려는 의도 때문이다.

사, 1995.

이회중, 『역사의 부침과 시의 행로』, 『1950년대 시인들』, 나남, 1994.

김선학, 『엄숙함과 경건함과 품격 그리고 어조』, 『문학과 의식』, 1998 가을.

고형진, 『회화적 상상력의 확산과 동양 시학의 계승』, 『문학과 의식』, 2000 가을.

줄 고, 『김종길 시의 시간의식 연구』, 『한국문학 평론』, 2000 겨울.

- 2) 연구의 범위를 제1시론집과 제2시론집으로 한정할 이유는, 제1시론집 『시론』이 모태가 되어 출발한 김종길의 비평이 제2시론집 『진실과 언어』에 이르러 정립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제3시론집 『시에 대하여』는 김종길이 회갑을 맞아 당시까지의 비평 작업을 정리한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서, 제1시론집과 제2시론집에 수록된 비평이 상당 부분 재수록되었으며 새로운 비평의 양상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제3시론집과 그 이후의 비평을 수록한 제4시론집 『시와 시인들』에서 특징이 되는 새로운 양상을 찾는다면, 시 교육의 차원에서 시 읽기와 시 해석의 방법을 정리하려는 시도, 한시에 대한 이해, 한국시의 번역 및 소개의 차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영역에 대한 연구는 다른 지면을 필요로 한다.

II. 기존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종길 비평에 대한 기존의 논의로는 유종호, 김우창, 김형수, 최동호, 하회정, 김인환 등의 글이 있다. 유종호는 영미 현대 비평이 한국 비평에 끼친 영향을 최재서, 송옥, 김종길, 이어령, 김우창, 이상섭의 비평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자리에서 김종길의 비평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 신비평의 비판적 전체에 공명하면서 실제비평을 피한 이로서 우리는 김종길을 들 수 있다. 엘리엇 시와 시론에의 경도를 공유하고 있는 그는 비평 방법에 있어서는 송옥보다는 한결 신비평의 정통성에 입각해 있으며 또 거기에서 시비평의 독자성을 인정하려 하고 있다.

- 김종길은 신비평의 비평기준을 원용하면서 원론적 전개에 머물지 않고 설득력있는 실제비평을 통해서 그 기준을 구체화했다는 점에 공이 있다고 하겠다. 최재서의 문체가 준거 비평가들의 문체와는 동떨어지게 거칠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김종길의 문체는 정확함과 치밀함에 있어서 준거 비평가들의 문체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의 실제비평의 성숙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

김종길 비평에 대한 유종호의 전체적 평가는 신비평의 기준을 실제 비평에 적용하여 한국 시 비평의 수준을 옮겨 놓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인용문에서 눈에 띄는 것은 최재서 및 송옥 비평과의 비교이다. 유종호는 김종길의 비평 방법이 송옥에 비해 신비평의 정통성에 입각해 있다는 점과, 그 문체가 최재서에 비해 준거 비평가들의 문체에 육박할 정도로 정확하고 치밀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유종호의 이러한 지적은 이후 김종길 시론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로 정착되는 듯하다. 한편 유종호의 논의는 제2시론집 『진실과 언어』가 간행되기 이전까지의 활동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이후 전개된 김종길 시론의 특징과 변모 양상에 대한 후속 연구가 요청된다고 말할 수 있다.

김우창은 김종길의 제1시론집 『시론』(1965)과 제2시론집 『진실과 언어』(1974)에 대한 각각의 서평에서 상이한 평가를 내리고 있어 주목된다.

2) 유종호, 「영미 현대비평이 한국비평에 끼친 영향」 1971 초고, 「영미비평연구」, 민음사, 1979, p.287, p.289.

- 1) - 김종길 씨는 시가 자족적인 존재물이라는 근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전제를 정당화해 주는 세련된 감수성과 정확한 감식안을 가지고 있다.
 - 김종길 씨의 감식력은 대개 정확하게 움직이지만 거기에 불가피하게 따르게 마련인 비평의 어휘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다.
 - 우리는 「시론」 전반에서 불철저하게 사용된 비평 어휘와 사실 판단과 불연속의 논리를 발견하게 된다.⁴⁾
- 2) - 이번의 『진실과 언어』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김종길 씨의 비평이 의미하고 있는 영문학 이외의 배경이다. 즉 그의 비평은 서양에 못지 않게 한국의 전통에 굳게 뿌리를 박고 있는 것이다.
 - 김종길 씨가 신비평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영미비평의 분석적이고 경험주의적 전통을 도입하고 이를 실천적으로 예증해온 것은 사실이다.
이 전통은 수사(修辭)와 경험의 결합에 대한 세심하고 정확한 주의에 의하여 특징지워진다고 말할 수 있다.
 - 김종길 씨의 『진실과 언어』는 (...) 유교 전통의 문화적 가치의 그것과 시와의 관계에 대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는 바 크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비평적 기여가 될 것이다.⁵⁾

김우창은 김종길의 제1시론집 『시론』에 대해 세련된 감수성과 정확한 감식안을 가진 측면에서 장점을 보여주지만, 불철저하게 사고된 비평 어휘와 사실 판단과 불연속의 논리에 대해 비판적으로 언급한다. 김우창의 비판은 첫째, 시를 자족적 존재로 보는 관점이 시를 현실의 복잡한 상호 연관 속에서 파악하는 퍼스펙티브를 갖지 못하는 점, 둘째, 시 한편 한편에 대한 감각가적인 집착이 시인에 대한 전체적 평가를 어렵게 한다는 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한편 김우창은 김종길의 제2시론집 『진실과 언어』에 대해 수사와 경험의 결합을 통해 영미 비평의 분석적이고 경험주의적 전통을 도입하고 실천한 점, 시의 진실은 시인의 체현적 진실임을 강조한 점, 영문학 이외의 배경으로 한국의 전통, 특히 유교 문화의 가치와 시와의 관계에 대해 가르치는 바 크다는 점에서 비평적 기여가 된다고 높이 평가한다.

4) 김우창, 「감성과 비평」, 『궁핍한 시대의 시인』, 민음사, 1977, p.304, p.305, p.306.

5) 김우창, 「염결성의 시학」, 위의 책, p.311, p.312, p.322.

김우창의 이러한 상이한 평가는 김종길의 비평의식이 제1시론집에서 제2시론집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 전개 과정 속에 내재된 변모 양상뿐 아니라 연속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점에서 문제성을 지니는 것이다. 『시론』과 『진실과 언어』 사이의 단절과 연속성에 대한 규명은 김종길 시론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관건이 되며, 더 나아가 서구 비평의 한국적 수용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형수는 『시론』에서 현대시의 조건으로 김종길이 든 시와 시인의 분리, 시의 객관적 존재성 인식을 시론의 출발로 본다. 그리고 그는 『진실과 언어』에서 주제성과 연결성에 초점을 두고 진실을 중시한 김종길 시론이 문학을 존재론적으로 이해하기보다 효용론적 관점으로 보아온 우리 문학 전통 위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김종길에서 우리는, 시의 내용보다는 형식화 방법을 중요시하고, 시를 자족적인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서구의 이론을 받아들이는 한 특징적 유형을 발견할 수 있다. 엘리엇에 깊은 감화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김종길은 정작 엘리엇의 중요 개념인 '전통'은 수용한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실령 받아들였다고 해도 엘리엇의 전통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통 개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 보든 김종길에 있어서 정신적·문화적 전통은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⁶⁾

인용문은 김종길 시론에 작용하고 있는 전통 개념이 엘리엇의 그것과는 별개의 것이며, 김종길이 정신적, 문화적 전통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점에서 재고의 여지를 남겨준다. 김종길의 논문은 김종길 시론의 특징을 제1시론과 제2시론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는데, 평면적인 고찰에 머물고 있어 단절과 연속성의 관점에서 새로운 규명을 시도하지는 않고 있다.

최동호의 논문은 영문학자인 김종길의 비평에서 오히려 유교적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깨닫는다는 역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유종호와 김우창이 제시한 관점을 예각화하여 발전시킨 것으로서, 주로 황매천, 이육사, 유치환, 조지

6) 김형수, 「김종길 시론 연구」, 『한국현대시론사』, 모음사, 1992, p.448.

훈, 박목월 등 정신적 풍격과 지조를 중시한 시인들에 집중되어 있는 김종길의 실제 비평을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시도된다. 최동호는 이 과정에서 '시와 시인의 비분리'라는 관점이 김종길 시론의 중요한 핵심임을 밝히면서 서구 현대문학의 주제적 수용과 전통의 심화와 확대라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결국 김종길의 비평적 기준을 요약하자면 '풍격'과 '지조'가 심미적 이성으로서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관되게 대상에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유가적 전통이 그러한 것처럼 시와 비평이 인격적 수양의 표현으로서 하나가 되고, 시와 시인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의 세계관은 타협을 모르는 원칙주의로서 우리 비평의 정신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앞으로 오래도록 음미되어야 할 우리 시대의 한 표본일 것이다.⁷⁾

최동호의 논문은 시와 시인의 분리론이 서구 비평과 김종길의 비평을 구별하는 척도가 됨을 선명히 밝혀낸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종길의 주제적 시관과 유가적 전통 문화와의 관련성은 앞으로 더 심층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하회정은 영미 신비평의 기본 관점을 정리하고, 그 한국적 수용의 양상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김종길 시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김기림에게 결여되었던 내면성이 그에게는 서구적 감수성과 유가적 교양이 결합된 형태로 뚜렷하게 존재했던 것이고, 그것이 그가 김기림을 넘어설 수 있게 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내면성의 발견이 만족할 만큼 온전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 내면성 자체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지속하는 것을 찾아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⁸⁾

하회정은 내용과 형식의 등가적 결합을 통해 전체시론을 추구한 김기림이 형식 논리적 수준에 머무른 데 비해, 서구적 감수성과 유가적 교양을 결합한

7) 최동호, 「심미적 이성의 전고성과 비평의식」, 『현대비평과 이론』, 1995 가을 겨울, p.58.

8) 하회정, 「영미 신비평의 기본 관점과 한국적 수용의 두 양상」, 『한국 현대시론사 연구』, 문학과지성사, 1998, p.334.

내면성을 확보한 점에서 김종길 시론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이 내면성 자체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지속하지 못했다고 한계를 지적하면서 송옥이 『시학평전』에서 보여준 작업이 바로 이 점이라고 언급한다. 이 견해는 유종호, 최동호 등과는 다른 관점에서 송옥과 김종길 시론의 특징을 대비시킨 것으로서, 그 평가에 대해 더 엄밀하고 구체적인 논문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김인환은 20세기 한국 비평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며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자리에서 김종길의 비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김종길은 『시론』(탐구당, 1965)에서 시를 정확하고 섬세하게 읽는 방법을 보여 주었다. (...) 김종길에 의하면 현대시란 그때그때 새로운 느낌을 주는 시이고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의미를 내포하는 시이고 사물과 경험 또는 세계와 인생 사이의 새로운 관계의 발견이 담겨 있는 시이다. 그러나 김종길은 새로운 발견을 가능하게 하는 실험 의식이 전통에 대한 재확인 또는 비판적 검토의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였다.⁹⁾

김인환은 김종길의 시론에 대해 시를 정확하고 섬세하게 읽는 방법을 높이 평가한 후, 현대시에 대한 개념을 중심으로 김종길 비평의 특징을 요약한다. “사물과 경험 또는 세계와 인생 사이의 새로운 관계의 발견”을 가능케 하는 실험 의식이 전통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어긋나지 않음을 지적함으로써 김종길 비평의 핵심을 쉽고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존 논의를 고찰한 결과 우리는 김종길 비평에 대한 연구가 영미 신비평의 비평적 전제를 실제 비평에 적용하여 한국 시 비평의 수준을 올려놓았다는 점, 비평 문체가 정확하고 치밀하다는 점, 세련된 감수성과 정확한 감식안을 가졌다는 점, 『시론』에서 노정된 불철저한 사고가 『진실과 언어』에서 수사와 경험을 결합하고 서구적 감수성과 유가적 교양을 성공적으로 결합함으로써 극복되었다는 점 등에 집중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본고는 기존 논의가 간과한 김종길 비평의 내면적 측면을 밝혀내기 위해 제1시론집 『시론』과 제2시론집 『진실과 언어』 사이의 내재되어 있는 연속성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김종길 시론의 전개 과정을 규명하고자 한다.

9) 김인환, 「20세기 한국 비평의 비판적 검토」, 『문학과 사회』, 1999 겨울, p.1587.

Ⅲ. 현대성과 역사 의식 - 『시론』

1950년대 중반부터 비평 활동을 시작한 김종길 초기 시론의 양상은 첫 시론집 『시론』에 수록되어 있다. 『시론』의 체계는 1장 <현대시 산고(散稿)>, 2장 <한국 시인론>, 3장 <한국시의 현황>, 4장 <한국시 비판>, 5장 <현대 영시론>, 6장 <엘리어트>, 7장 <영시와 그 고장>으로 되어 있다. 5-7장이 엘리엇을 중심으로 현대 영시와 시 이론을 정리하고 소개하는 영역이라면, 1-4장은 김종길이 비평가로서 당시 한국 시단에 개입하여 제기한 시 이론과 실제 비평의 영역이다. 이중 2장이 시인론이고 3장이 월평을 비롯한 당시 시단 동향에 대한 시평(時評)이라면, 1장 <현대시 산고>는 현대시에 대한 개념을 몇 가지 핵심어를 중심으로 정리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개진한 시 이론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1장 <현대시 산고>는 「현대」, 「소재」, 「의미」, 「포엠」, 「모더니즘」, 「난해성」, 「산문의 시대」로 이어지는 일련의 비평적 에세이로서 ‘현대시 산고’라는 제목이 암시하듯 본격적인 이론 정립을 시도한 것이라기보다 현대시에 관한 김종길의 탐구와 사색을 정리한 것이다. 이 탐구와 사색은 비록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김종길 비평의 이론적 단초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일련의 글에서 그가 주로 밝혀보고자 한 문제는 현대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성’의 문제이다. 「현대」라는 첫 글에서 김종길은 “시는 역사와 관련을 가지면서도 그 자체의 역사를 따로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에 있어서의 ‘현대’는 역사에 있어서의 현대와 시사(詩史)에 있어서의 현대라는 이중의 고려 위에 생각해야 한다”라고 전제하고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흔히들 이 시기를 위기나 불안이니 하는 말로써 나타내려고 하나 ‘현대시’라는 특수한 개념은 이러한 말로써 적절히 규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그것은 차라리 하나의 ‘방식’으로써 보다 더 잘 언표될 지도 모른다. 시사적으로 그것이 하나의 인습에 대한 새로운 인습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대법하게 말하면 19세기적인 방식에 대한 20세기적인 방식이다.¹⁰⁾

10) 김종길, 「현대」, 『시론』, 탐구당, 1965, p.11.

김종길은 “현대시”라는 개념을 위기나 불안 등의 현대적 특징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하나의 ‘방식’으로 언표될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을 19세기적인 방식에 대한 20세기적인 방식이라 지적한다. 이러한 언급은 다소 소박한 차원의 견해로 여겨질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방식’에 초점을 두는 김종길의 시선이다. 이 ‘방식’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세계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하나의 관점 혹은 사고 방식으로서의 세계관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에 초점을 두는, 즉 현대시의 개념을 내용보다는 형식의 측면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 관점이 아직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고 공존해 있는 것이 김종길 초기 시론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수 있는 대목은 “시사적으로 그것이 하나의 인습에 대한 새로운 인습이기 때문이다”라는 문장이다. 현대시가 지닌 현대성을 과거의 인습에 대한 형식적 새로움의 추구라고 일단 정의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현대성에서 새로움을 강조하는 데 비해 김종길은 그것을 또 다른 인습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숨어있는 김종길의 태도는 “시사적으로”라는 말에서 엿볼 수 있듯, 현대시라는 개념조차 동시대적 시선이 아니라 시사의 전체적 맥락 속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현대성을 시사적 맥락 속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이러한 시선은 ‘전통’ 혹은 ‘역사 의식’에 대한 김종길의 사유와 내면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통이라는 것이 그러하듯이 ‘현대’라는 것도 ‘소박’하고 안이한 시인에게 함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예민한 역사적인 감각과 의식적인 노력을 요한다.

현대의 시는 ‘현대시’라야 시사적인 의의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시사적으로 의의 있는 작품이 ‘새로운’ 작품이다. 그러나 현대의 모색이 시의 상실을 초래하기보다는 별로 새로운 작품은 못되더라도 사랑할 수 있는 시를 쓰는 것이 안전한 일이다.¹¹⁾

김종길에 의하면 시인에게 있어 ‘현대성’의 체득은 예민한 역사적 감각과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얻어진다. 여기서 “예민한 역사적 감각”은 엘리어트가 말

11) 김종길, 위의 글, p.11.

한 '역사 의식'을 연상시키는데, 왜냐하면 김종길은 “전통이라는 것이 그러하듯이”라는 전제를 달고 이 문장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시를 시사적으로 하나의 새로운 인습이라고 보는 관점과 전통 혹은 역사 의식과 관련하여 그것을 파악하는 관점은 상통하는 측면을 가진다. 엘리어트는 「전통과 개인의 재능」에서 전통과 역사 의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이 역사적 의식에는 과거의 과거성에 대한 인식 뿐 아니라 그 현재성에 대한 인식도 내포되어 있으며, 이 역사적 의식으로 말미암아 작가가 작품을 쓸 때 골수에 박혀 있는 자신의 세대를 파악하게 되며, 호머 이래의 유럽의 문학 전체와 그 일부를 이루는 자국의 문학 전체가 동시적 존재를 가졌고, 또한 동시적 질서를 구성한다는 느낌을 반드시 갖게 된다. 이 역사적 의식은 일시적인 것에 대한 의식인 동시에 항구적인 것에 대한 의식이고, 일시적인 것과 영구적인 것을 함께 인식하는 의식이며, 문학자에게 전통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한 작가로 하여금 시간의 흐름 속에서 차지하는 자기의 위치와 자신이 속해 있는 시대에 대하여 극히 날카롭게 의식하게 하는 것이다.¹²⁾

엘리어트가 말한 역사 의식은 문학사 전체를 통해 가치 있는 작품들이 동시적 질서를 이루며 현재에도 살아 있으므로, 시인은 역사의 지속과 문학사의 연속성을 의식하며 창작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개인의 재능은 이러한 역사 의식을 가질 때 비로소 문학사의 연속성 속에서 자기 세대의 특수성을 획득할 수 있으며, 시인 혹은 작가는 전통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따라서 초기 시론의 출발점에 서있는 「현대」라는 글에서부터 김종길의 사유는 소박하나마 이러한 엘리어트의 전통 혹은 역사 의식의 개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엘리어트에게 동시적 질서를 이루고 있었던 전통이 유럽 문학사라면, 김종길에게 동시적 질서를 이루는 전통은 무엇이었을까?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김종길 비평의 출발과 그 전개 과정을 해명해 내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김종길의 인용문 후반부는 현대성을 지향하는 관점에 하나의 전제 사항이 있음을 보여준다. “시의 상실”이란 작품성의 측면에서 미달하는 시를 의

12) T.S. 엘리어트, 이창배 역, 「전통과 개인의 재능」, 『엘리엇 선집』, 을유문화사, 1959, p.373.

미한다. 따라서 김종길은 현대성의 모색을 시사적으로 옹호하지만, 그것이 작품성 즉 시의 형상화 방식과 수준을 확보하지 못할 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 역시 김종길 시론 전체를 관통하는 기본 태도라 볼 수 있다. 1950-1960년대 한국시에 있어서 쟁점이 된 '실험시'에 대한 김종길의 평가 역시 이러한 태도에 의거하고 있는 것이다.

「소재」와 「의미」는 「현대」에서 보여준 이러한 현대시의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각론이라고 할 수 있다. 「소재」에서 김종길은 “예술의 소재는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경험 전반이다. 소재는 예술적인 과정을 거침으로써 변형하고 변질한다”라고 전제한 후, “시적인 소재가 따로 있다는 생각은 유치하다.”, “시의 ‘모더니티’를 너무 소재에만 찾으려는 의도는 근시안적이다.”라고 언급한다. 이것은 일상적인 경험 전체가 시의 소재가 될 수 있으며 그것을 시적 형상화 과정에서 변형된다는 의미로서, 내용보다는 형상화 방식 즉 기법이나 형식을 중시하는 영미 모더니즘의 시관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앞에서 인용한 엘리엇의 소재 방정식에 대입하면 이렇게 되리라. 즉 “중요한 것은 성분인 소재의 현대성이 아니라, 예술적 과정, 말하자면 그 속에서 융합이 일어나는 방식의 현대성이다.”¹³⁾

김종길이 인용한 엘리엇의 소재 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문장이다. “중요한 것은 성분인 정서의 ‘위대함’이나 강렬함이 아니라, 예술적 과정, 말하자면 그 아래서 융합이 일어나는 압력의 크기이다.” 엘리엇은 현대시의 개념을 낭만주의 시와 대립항으로 두고 ‘정서’의 차원보다는 그것이 예술적으로 형상화라는 과정에 의의를 둔다. 그런데 “그 아래서 융합이 일어나는 압력의 크기”라는 구절은 미묘한 여운을 던져준다. 즉 융합이 일어나는 압력의 크기는 단지 예술적 형상화 과정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정서의 강렬함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엘리엇가 “융합이 일어나는 압력”이라고 표현한 것을 김종길은 “융합이 일어나는 방식”으로 바꾸어 표현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방식’이라는 단어를 예술적 형상화 과정을 중시하지만 그 이전의 내용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해석은 「현대」에

13) 김종길, 「소재」, 『시론』, 앞의 책, p.15.

서 살펴본, “20세기적인 방식”이라는 표현에 대한 해석과도 상통하는 것이다. “시는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한다.”라는 머클리이슈(Archibald Macleish)의 「시법(詩法)」을 인용하면서 시작되는 「의미」는 김종길의 상정하고 있는 ‘현대시’의 조건으로서 ‘시의 객관적 존재성’을 규명하는 글이다.

“(…) 작품이 완결되고 나면 그 작품은 시인의 것도 아니오 독자의 것도 아닌 것이다. 그것은 그 자신의 질서와 이유를 가지는 것이다.”라고.

시가 객관적 존재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이다. 그리고 이 점이 현대의 시 비평의 이론적인 발판이 된다.¹⁴⁾

시를 하나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존재로서 생각하는 관점이 현대 시비평의 이론적 발판이 된다는 언급은 김종길 비평의 이론적 토대가 엘리어트를 중심으로 한 영미 신비평에 있음을 잘 보여준다. 시의 객관적 존재성 인식은 「포엠」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은 인식으로 연결되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기능과 인간을 우선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현대의 경향이 있다. (….) 시나 시인이라는 것이 이천 년이나 혹은 그 이상의 오랜 동안 필요 이상으로 경의의 대상이 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 고대 회람 사람들은 시인을 “제작하는 사람”, 시를 “제작된 것”이라는 말로써 불렀다. 이것이 ‘포에프’나 ‘포엠’이라는 서구어의 어원이거나와 현대시는 시의 이 어원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시를 “힘찬 감정의 유로” (워즈워스)로 보기보다는 의식적인 작업으로 보고, 정념에 대한 기교의 우위를 주장하는 등의 현대시에 있어서의 관념과 태도가 그것이다.¹⁵⁾

엘리어트의 시론인 ‘물개성론’이나 ‘시와 시인의 분리’를 원용한 듯한 인용문에서 김종길은 ‘시와 시인의 분리’를 뚜렷히 내세우지 않고 일반적인 현대의 경향으로 노래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 현대의 경향이었다.”라는 과거 시제 서술형의 사용은 김종길의 시의식 속에서 ‘시와 시인의 분리’가 선포한 주장이 아니라 하나의 고려 대상으로서 인식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시를 의식적인 작업으로 보고 정념 보다는 기교의 우위를 주장하는 관점도 자신의 주장으로서

14) 김종길, 「의미」, 『시론』, 앞의 책, p.19.

15) 김종길, 「포엠」, 『시론』, 앞의 책, p.21.

가 아니라 서구 현대시의 관념과 태도로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서구 현대시의 관점을 고대 회랍 시대의 시적 개념으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파악하는 것은 이미 김종길이 엘리엇가 말한 바 전통과 역사 의식의 소유자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본고는 기존의 논의 중에서 제1시론집 『시론』에서 시를 하나의 유기체라고 보는 서구의 이론을 받아들였지만 정작 엘리엇의 중요 개념인 '전통'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관점과, 제1시론집 『시론』에서 서구 신비평의 영향을 받아 시와 시인의 분리를 주장하던 김종길이 제2시론집 『진실과 언어』에서 시 이전의 시인의 진실과 체험을 중시하고 유가적 전통을 통해 주체적 시론을 정립했다는 관점을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김종길은 비록 소박한 형태이지만 제1시론집 『시론』에서 이미 엘리엇 비평의 중심 개념인 '전통'과 '역사 의식'을 내면화했으며, '시의 객관적 존재성' 및 '시와 시인의 분리'를 명제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고려 사항으로서 신중히 인식하며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2장 <한국 시인론>에서 박목월, 유치환, 윤동주, 민재식, 성찬경 등의 시인론에 나타나는, 시인이라는 인간을 통해 시에 접근하는 실재 비평의 방식이 단지 자기 시 이론과의 모순과 균열만은 아님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청마는 현대 시인으로서 매우 소박하고 단순한 시인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소박하면서도 거대하고 명확한 사색의 시인이다. 그에겐 자기가 시인이라는 의식은 따로 없지만 끈기 있게 그리고 열렬하게 인생과 우주를 탐구하고 그 결과를 기록함으로써 크고 힘찬 시를 쓰고 있으며 철학과 풍격을 갖추고 있다. 사실 그는 현대의 시인으로서 보기 드문 지속의 시인이며 그의 대가로서의 품모는 바로 그 점에 있다.¹⁶⁾

시인이 되기도 시를 쓰는 것만큼이나 참담한 인간 수업이라는 것을 재강조하고 싶은 충동에서 다시금 윤동주씨의 시인으로서의 생애와 그의 시에서 보는 인간적인 체취가 아깝고 그리워지는 것이다. 윤동주가 못될 바이면 차라리 '한하운의 행렬' 속에 끼어 '보리피리'라도 부르는 것이 시인 되기에는 다행한 조건일지도 모를 일이다.¹⁷⁾

16) 김종길, 「비평의 철학- 청마 시의 세계」, 『시론』, 앞의 책, p.63.

17) 김종길, 「시인이라는 것- 고 윤동주씨를 생각하며」, 『시론』, 앞의 책, p.67.

이러한 김종길의 비평적 관점은 ‘시의 객관적 존재성’과 ‘시와 시인의 분리’라는 서구 현대시론의 명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시인의 생애와 삶의 풍격을 증시하는 김종길 나름의 시관 가운데 하나의 참고 사항으로 고려되었을 뿐이다. 이런 차원에서 제1시론집에서 김종길의 엘리엇트를 중심으로 한 영미 신비평 수용의 태도는 ‘전통’과 ‘역사 의식’의 내면화라는 측면과, ‘시의 객관적 존재성’ 및 ‘시와 시인의 분리론’의 신중한 고려라는 측면으로 나누어 좀 더 심층적으로 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IV. 진실의 시적 언어화 - 『진실과 언어』

김종길의 제2시론집 『진실과 언어』는 1부 <진실과 언어>, 2부 <시의 언어>, 3부 <한국 현대 시인론>, 4부 <한국 현대시의 제 문제>, 5부 <현대시의 운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이론적 측면에서 주제적 시론을 정립하고자 시도하고 있으며, 2부는 언어, 이미지, 운율 등의 관점에서 현대시를 규명하고 산문시, 시론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3부는 이육사, 유치환, 김현승, 조지훈, 박목월 등의 시인들을 비평한 시인론이며, 4부는 한국시에 있어서의 비극적 황홀, 장시의 가능성, 엘리엇트의 영향 등을 서술한다. 그리고 5부는 에이츠, 엘리엇트, 진즈버어그 등 영미 시인들의 일화를 다루고 있다. 이중 본고가 주목하는 것은 이론적 측면에서 자신의 시론을 정립하고자 한 1부 <진실과 언어>이다.

제1시론집 『시론』의 중심 과제가 ‘현대성에 대한 해명’이었다면, 제2시론집 『진실과 언어』의 중심 과제는 당대 ‘한국시에 대한 반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김종길은 1960-1970년에 이르는 시기의 한국시의 현황을 침체와 혼미의 양상으로 파악하고, 이것을 극복하는 것을 시 비평의 중심 과제로 삼는다. 이것은 제1시론집에서 ‘현대성’의 규명에 초점을 두었던 일반론적 관심을 구체적인 한국시의 현실에 적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제1시론집의 3장 <한국시의 현황>과 4장 <한국시 비판>에서 시도했던 현장 비평의 관점들을 결집하여 이론적 종합을 시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제1시론집의 3장과 4장에서 김종길은 한국시의 현황에 대해 종합적인 진단을 내리면서 시가

현대적인 것이 되려고 하는 노력을 주로 ‘실험’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실험의 구체적인 양상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체성의 발견」, 「염결성의 회복」, 「진실과 언어」로 이어지는 일련의 평문은 당시 한국시가 당면한 침체와 혼미를 극복하려는 비평적 개입으로서 김종길 시론의 이론적 정립과도 연결되어 있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주체성의 발견」에서 김종길은 당시 시단에 대한 제언으로서 ‘염결성’ 내지는 ‘비평적 지성’의 회복을 피력하는데, 이 두 용어의 차별성을 음미하는 것은 김종길 시론의 핵심을 파악하는 일이 된다.

예를 들어 필자는 최근 어느 자리에서 우리 시단에 대한 제언으로서 염결성 내지는 비평적 지성의 회복을 말한 바 있으나, 그것은 기실 두 가지의 다른 관점을 포함하는 주장이다. 그 경우의 염결성은 비평적 지성을 토대로 하고 있으면서도, 전자가 윤리적인 관점인 데 대하여 후자는 지적인 관점이기 때문이다.¹⁸⁾

‘염결성’은 윤리적 관점인데 비해 ‘비평적 지성’은 지적인 관점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일단 윤리적 관점이란 시 이전의 시인, 즉 인간의 삶이 지닌 도덕적 측면을 말한 것이고, 지적인 관점은 시인과 분리된 시작품에 대한 객관적 측면을 말한다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김종길은 당시 시단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첫째, 추천 제도의 재검토, 둘째, 실험의 반성, 셋째, 순수 대 참여와 같은 양분법의 지양, 넷째, 작품 발표와 시집 발간의 절제라는 네 가지를 제안한다. 그리고 그는 이중 둘째와 셋째는 염결성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항목이라고 말하는 한편, 다시 그것이 순전히 비평적 지성의 문제라고만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러한 복잡한 논지의 근거에는 인간과 문화, 경험과 사물, 다시 말해 시인과 시 사이의 명확한 분절이 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고 보면 그 두 가지 주장에는 단순히 지적인 관점만이 아니라 어떤 정(情意)적인 관점이 또한 포함되어 있다. 이 후자를 필자는 여기서 주체성의 관점이라고 부르기로 하고, 그 관점에서 우리 시의 당면 과제를 두 가

18) 김종길, 「주체성의 발견」, 『진실과 언어』, 일지사, 1974, p.8.

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려 한다.¹⁹⁾

김종길의 시론에서 지적인 관점과 윤리적 관점, 즉 정의(情意)적 관점은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다. 상호 포함 관계에 있는 이 두 관점은 결국 시인과 시의 상호 포함 관계로 이해될 수 있다. 김종길은 상호 포함 관계의 두 관점 중 윤리적 관점을 두고 ‘주체성’의 관점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당시 한국시의 당면 과제를 지적하는 두 가지 항목을 통해 그 관점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첫째는 시의 현대성에 대한 반성이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우리는 아직도 20세기 전반에 횡행했던 시의 현대성이라는 유령(幽靈)에 홀려 있는 것 같다. 그리하여 우리는 현대시란 정적(情的) 이기보다는 지적이어야 하고, 리듬보다는 이미지에 치중해야 하고, 평이하기보다는 난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론적으로 시와 시인은 별개의 것이니까 우리는 한국인이면서도 국적 불명의 시를 써도 좋고 이 땅의 독자들의 공감은 도외시되어도 좋다는 투로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다.²⁰⁾

김종길은 시의 관념을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주체적인 시작(詩作)과 시관(詩觀)의 정립에 등한하여 온 우리 현대시사를 반성한다. 시의 ‘현대성’에 집착하여 ‘시와 시인의 분리’를 강조한 점 등이 우리의 실정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온당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리고 김종길은 “시라는 것은 지·정·의의 모든 정신력의 소산이요, 이미지만이 아니라 진술·운율 등 전 기능의 유기적인 관련 위에 성립하는 것이며 무의미하게 난해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는데, 여기서 시를 유기적 관련성 속에서 파악하는 것은 시인의 진실까지를 포함하는 관점이라는 점에서 서구 신비평에서 말한 ‘시의 유기적 결합’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이러한 김종길의 시관은 “시란 주로 진실한 자의적인 경험의 결정”이라는 문장으로 수렴된다. 그런데 제1시론집과 비교할 때 단절과 변모를 뚜렷히 드러내는 듯한 이러한 관점도 좀더 세밀히 천착해 볼 필요가 있다. 김종길이 당시 한국시의 당면 과제로 지적한 두 번째 항목은 순수와 참여라는 양분법의 지양이

19) 김종길, 위의 글, pp. 8~9.

20) 김종길, 위의 글, p.9.

다. 그는“순수와 참여는 이론적으로 문학에 있어서는 확연히 구별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라고 전제한 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이런 뜻에서는 비교적 더 순수한 시가 있고 비교적 덜 순수한 시가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순수와 참여의 차이는 시적인 차이라기보다는 시인이나 비평가의 시의 사회적 기능 내지는 시인의 사회적 임무에 대한 견해의 차이이다. 그러나 그러한 견해는 결코 하나밖에 있을 수 없다든가 어느 하나만이 옳다고 하는 것은 어느 편에 서든간에 독단에 불과하다. 게다가 그와 같은 차이는 견해의 차이로서 문제되는 만큼 시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의 성부(成否)는 시 이전의 견해나 의도의 차이에만 달려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²¹⁾

김종길은 순수와 참여의 차이는 시적인 차이라기보다 시인이나 비평가가 지닌 사회적 기능 혹은 사회적 임무에 대한 견해의 차이라고 말하지만, 이러한 차이도 시의 성부(成否)에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이런 관점은 시인이 지닌 사회적 기능이나 임무에 대한 견해로서 순수와 참여의 차이보다 시의 작품성이 더 중요하다는 견해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김종길은 덧붙여 “시인에게 이 시대를 사는 한국인으로서의 자각과 성실이 있고, 시와 시인 및 시의 진실과 시인의 진실이 별개의 것이 아닌 이상 모든 시, 모든 시인은 설사 정도와 방향의 차이는 있을망정 참여를 하는 셈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시인의 진실을 강조한다.

그러면 김종길이 제시하는 시의 내용으로서의 ‘진실’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그것은 다음과 같은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시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경우 시적 진실과 현실에 있어서는 진실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어 대부분의 경우에 작품의 화자는 시인 자신으로 보아 무방하다. 이러한 경우 시인의 소재는 주로 그의 생활과 체험에서 얻어지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우리 주변에서는 생활과 체험에서보다는 시적 언어에 대한 실험 의식이나 시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당위 의식에 지나치게 사로잡혀 가화(假花) 같은, 또는 프로그램이나 포스터 같은 허황되거나 공소한 시를 쓰는 소장 시인들이 시단을 사실상 대표하고 있다.²²⁾

21) 김종길, 위의 글, pp.10-11.

김종길은 “시에 있어서의 진실은 현실에 있어서의 그것과 엄밀한 뜻으로는 완전히 부합되는 것이 아니며 또 부합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라고 전제하지만, “시는 다른 예술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어느 뜻으로든지 현실의 모상이요, 그 자체가 또 하나의 현실이요, 또 하나의 세계이다”라는 부연함으로써 시의 진실과 현실의 진실을 밀착시킨다. 이러한 관점은 시와 시인을 밀착시키는 관점과도 상통한다. 그러므로 김종길이 제시하는 ‘진실’은 시인이 생활하고 체험하는 현실 자체가 된다. 김종길이 현실의 생활과 체험에서 얻어지는 시인의 ‘진실’을 중시하는 것은 인용문에서 보듯, 당시 한국 시단이 실험 의식에 사로잡힌 순수 시나 사회적 기능에 대한 당위 의식에 사로잡힌 참여시의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침체와 부진의 늪에 빠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편 김종길은 시인의 ‘염결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시인의 염결성은 우선 인간적 내지 도덕적인 문제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시인이란 자질에 있어 보통 사람들과 구별되는 면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이러한 시대에는 시인도 최소한 건전한 정신을 가진 정상적인 시민의 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그에게는 예술적인 양심과 양식(良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술적인 양심 내지 양식이란 쉽게 말하면 시인의 경우 자기가 쓰는 작품이 의미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알아내고 무의미한 경우에는 발표를 삼가는 지각입니다.²³⁾

김종길이 제2시론집에서 보여준 ‘주체성’의 확립은 서구 비평이론을 우리 실정에 맞게 변형하여 내면화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객관적 존재로서의 작품을 시인의 염결성, 즉 예술적 양심이나 양식(良識)과 관련하여 사고하는 관점은 당시 한국의 현실적, 문화적 상황에 대한 나름의 정확한 진단 및 그 문제점에 대한 타개책으로서 제시된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종길은 일반론으로서의 ‘현대성’의 규명에서 더 나아가 우리 현대시와 시단이 가진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병폐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자신의 시론을 주체적으로 정립해 나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제1시론집에서 시와 시인의 분리와 비분리 사이에서 유동하던 관점이 좀더 분명한 입장으로 정립되어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게 되는 것이다.

22) 위의 글, p.22.

23) 김종길, 『염결성의 회복』, 『진실과 언어』, 앞의 책, pp.13-14.

「진실과 언어」에서 김종길은 당시 한국시의 현실을 무의미하다고 평가하고, 그 양상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그것은 첫째, 언어의 형식적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둘째, 언어의 형식은 일단 갖추어져 있으면서도 충분한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셋째, 앞의 두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오늘날의 시로서 충분한 의미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이다.

첫째는 시의 언어가 어법 내지 문법을 벗어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독창적인 어법을 실험하더라도 어떤 의미로든지 그것이 적절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는 당시 한국시에 팽배해 있던 실험시의 난해성과 애매성에 대한 문제 제기의 성격을 띤다. 둘째는 시적 형식 이전의 내용에 대한 관점으로서, 시의 내용으로서의 진실에 대한 그릇되거나 미흡한 인식 내지 불충분함을 경계하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김종길은 “설사 시인에게 어떤 진실에의 통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충분히 언어화되기까지는 그것은 시의 의미 내용은 되지 못한다”라는 관점에서 ‘진실의 언어화’를 강조한다. 셋째는 언어의 형식 및 그것과 의미 내용 사이의 관계에 파탄이 없으면서도 그것이 오늘의 시로서는 의미와 가치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를 지적한 것으로, 김종길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시의 ‘새로움’이라고 지적한다. ‘시대성’과 ‘언어 형식’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새로움’을 규명하는 김종길은, 시가 새로운 시대성과 언어 형식을 갖추어야 하지만 현대성의 추구가 지나치게 계획적이거나 의식적인 경우 공소한 언어의 형해(形骸)를 낳기 쉽다고 지적한다. 그리하여 “이른 바 모더니즘이나 순수시나 참여시의 너무나도 의식적이며 계획적인 실험의 대부분이 공소하여 진실을 담는 데 실패한 것은 이러한 사정” 때문이라고 평가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김종길이 시의 내용으로서의 진실과 그 진실의 언어화로서의 언어 형식을 아울러 중시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의도적인 실험이 형식의 새로움에 치우쳐 내용으로서의 진실을 담는 데 실패한다고 보는 관점도 이러한 내용과 형식, 즉 시인의 진실과 시적 언어화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는 관점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다. ‘시적 진실과 시적 언어의 합일’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 이러한 시관은 다음과 같은 시에 대한 정의로 표현되고 있다.

시란 인생과 세계의 진실을 가장 고도로 조직된 언어로써 감동적으로 제시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여기서 “가장 고도로 조직된 언어”라 함은 시는 언어를 매재로 하는 예술인 문학 가운데서도 특히 고도의 언어 조직을 가진다는 뜻으로, 훌륭한 시작품에 있어서는 언어의 형식과 내용,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여 말의 소리와 뜻이 나눌 수 없을 만큼 하나가 되어 있음을 뜻한다. 시가 특히 운율과 이미지리와 어조에 크게 의존하고, 특히 강렬한 쾌감 내지 감동을 주는 사실은 모두 그 때문이다.²⁴⁾

“시란 인생과 세계의 진실을 고도로 조직된 언어로써 감동적으로 제시한다”라는 정의는 ‘진실의 시적 언어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도의 언어 조직으로서의 시를 형식과 내용의 유기적 결합으로 보는 관점으로 나아간다. 따라서 김종길은 시 비평에 있어서 말의 소리와 뜻, 운율과 이미지와 어조의 유기적 결합을 중시하고 그것이 주는 감동의 차원을 중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2시론집 『진실과 언어』에서 구체화되는 김종길 시론의 핵심은 ‘진실의 시적 언어화’로 수렴된다. 「주체성의 발견」이나 「염결성의 회복」에서 강조된 ‘주체성’과 ‘염결성’은 시인이 지닌 윤리적 관점, 즉 예술적인 양심 내지 양식(良識)의 관점으로서 시 이전의 진실에 해당하지만, 김종길이 최종적으로 주장하는 시관은 이 진실을 고도로 조직된 시적 언어로 형상화하는 차원, 즉 내용과 형식, 시적 진실과 시적 언어의 유기적 결합인 것이다. 결국 김종길은 한국적 현실을 생활하고 체험하는 시인의 예술적 양심을 ‘진실’이라는 용어로 함축하고, 이와 동의어인 ‘염결성’ 및 ‘주체성’을 주창하는 동시에 그것을 고도로 조직된 시적 언어로 형상화하는 언어 표현을 중시함으로써, 당시 한국 시단에 대한 비평적 개입으로서 자신의 시론을 정립하고 있는 것이다.

V. 결 론

본고는 김종길 비평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영미 신비평의 비평적 전제를 실제 비평에 적용하여 한국 시 비평의 수준을 올려 놓았다는 점, 비평 문체가 정

24) 김종길, 「진실과 언어」, 『진실과 언어』, 앞의 책, pp. 17-18.

확하고 치밀하다는 점, 세련된 감수성과 정확한 감식안을 가졌다는 점, 『시론』에서 노정된 불철저한 사고가 『진실과 언어』에서 수사와 경험을 결합하고 서구적 감수성과 유가적 교양을 성공적으로 결합함으로써 극복되었다는 점 등에 집중되어 왔음을 확인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성과를 보완하기 위해 제1시론집 『시론』과 제2시론집 『진실과 언어』 사이의 내재되어 있는 연속성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김종길 시론의 전개 과정을 규명함으로써 김종길 비평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시 이론의 영역을 중심으로 고찰한 것은 기존 연구가 김종길 비평의 특징으로 간주되어온 실제 비평의 영역, 즉 월평, 작품론, 시인론에 치중하여 고찰됨으로써 그 내면적 특징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제1시론집 『시론』에 나타난 김종길의 비평적 관점은 '시의 객관적 존재성'과 '시와 시인의 분리'라는 서구 현대시론의 명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시인의 생애와 삶의 풍격을 중시하는 김종길 나름의 시관 가운데 하나의 참고 사항으로 고려되었을 뿐이다. 이런 차원에서 제1시론집에서 김종길의 엘리엇트를 중심으로 한 영미 신비평 수용의 태도는 '전통'과 '역사 의식'의 내면화라는 측면과, '시의 객관적 존재성' 및 '시와 시인의 분리론'의 신중한 고려라는 측면으로 나누어 좀더 심층적으로 규명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기존의 논의 중에서 『시론』에서 시를 하나의 유기체라고 보는 서구의 이론을 받아들이지만 정작 엘리엇트의 중요 개념인 '전통'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관점과, 제1시론집 『시론』에서 서구 신비평의 영향을 받아 시와 시인의 분리를 주장하던 김종길이 제2시론집 『진실과 언어』에서 시 이전의 시인의 진실과 체험을 중시하고 유가적 전통을 통해 주체적 시론을 정립했다는 단절의 관점을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김종길은 비록 소박한 형태이지만 제1시론집 『시론』에서 이미 엘리엇트 비평의 중심 개념인 '전통'과 '역사 의식'을 내면화했으며, '시의 객관적 존재성' 및 '시와 시인의 분리'를 명제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고려 사항으로서 신중히 인식하며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제1시론집 『시론』의 중심 과제가 '현대성에 대한 해명'이었다면, 제2시론집 『진실과 언어』의 중심 과제는 당대 '한국시에 대한 반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김종길은 1960-1970년에 이르는 시기의 한국시의 현황을 침체와 혼미의

양성으로 파악하고, 이것을 극복하는 것을 시 비평의 중심 과제로 삼는다. 김종길의 시론에서 지적인 관점과 윤리적 관점, 즉 정의(情意)적 관점은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다. 상호 포함 관계에 있는 이 두 관점은 결국 시인과 시의 상호 포함 관계로 이해될 수 있다. “시란 인생과 세계의 진실을 고도로 조직된 언어로써 감동적으로 제시한다”라는 정의는 ‘진실의 시적 언어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도의 언어 조직으로서의 시를 형식과 내용의 유기적 결합으로 보는 관점으로 나아간다. 따라서 김종길은 시 비평에 있어서 말의 소리와 뜻, 운율과 이미지와 어조의 유기적 결합을 중시하고 그것이 주는 감동의 차원을 중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2시론집 『진실과 언어』에서 구체화되는 김종길 시론의 핵심은 ‘진실의 시적 언어화’로 수렴된다. ‘주체성’과 ‘염결성’은 시인이 지닌 윤리적 관점, 즉 예술적인 양심 내지 양식(良識)의 관점으로서 시 이전의 진실에 해당하지만, 김종길이 최종적으로 주장하는 시관은 이 진실을 고도로 조직된 시적 언어로 형상화하는 차원, 즉 내용과 형식, 시적 진실과 시적 언어의 유기적 결합인 것이다. 결국 김종길은 한국적 현실을 생활하고 체험하는 시인의 예술적 양심을 ‘진실’이라는 용어로 함축하고, 이와 동의어인 ‘염결성’ 및 ‘주체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그것을 고도로 조직된 시적 언어로 형상화하는 언어 표현을 중시함으로써, 당시 한국 시단에 대한 비평적 개입으로서 자신의 시론을 정립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논의를 통해 김종길의 제1시론집 『시론』이 제2시론집 『진실과 언어』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단절과 변모의 양상 속에 내면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연속성의 측면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김종길 비평의 전개 과정에는 비평적 관점의 비일관성 및 비약, 상황적 변수에 따른 변모 및 자기 모순의 양상도 노출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적 고찰로 인해 간과된 연속성의 측면을 검토하여 김종길 비평의 내적 논리를 규명하는 것이 본고의 의도였다. 제1시론집에서 ‘시의 객관적 존재성’ 및 ‘시와 시인의 분리’를 참고 사항으로 신중한 고려한 김종길은, 제2시론집에서 ‘시와 시인의 비분리’를 주장하면서도 ‘시의 객관적 존재성’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여 준다. 이 태도가 구체적으로 표면화된 것이 바로 ‘진실의 시적 언어화’인 것이다. 한편 김종길은 엘리엇가 말한 ‘전통’과 ‘역사 의식’을 제1시론집에서부터

내면화하고 있었으며, 그것을 '주체성' 혹은 '염결성'이라고 부른 '진실'의 차원으로 끌어들이고 다시 이 진실을 시적 언어로 형상화하는 언어 표현의 방식을 중시함으로써 '진실의 시적 언어화'라고 요약할 수 있을 주체적 시관을 정립해 나간다. 결국 김종길이 제2시론집에서 정립한 '진실의 시적 언어화' 즉 '시적 진실과 시적 언어의 융합'은 제1시론집에서 태동한 '시의 객관적 존재성'과 '시와 시인의 분리 및 비분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엘리엇적 개념의 '전통' 및 '역사의식' 등 일견 모순과 갈등을 일으키는 여러 시 이론들이 평이하면서도 실제적인 하나의 개념으로 수렴되고 종합되는 저수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 이론이 지금까지 기존 연구가 김종길 비평에 대해 개별 시를 섬세하게 읽는 심미안과 정확한 문체 등 미시적인 측면만을 강조한 것과는 다른 차원, 즉 실험시의 난해성이나 순수 대 참여의 이분법 등 당시 한국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극복하려는 거시적 안목을 가진 비평적 개입으로서 개진되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주제어: 김종길, 시 이론, 연속성, 현대성, 시의 객관적 존재성, 시와 시인의 (비)분리, 전통, 역사의식, 진실의 시적 언어화

참고문헌

- 김우창, 「감성과 비평」, 『궁핍한 시대의 시인』, 민음사, 1977.
 ----, 「염결성의 시학」, 『궁핍한 시대의 시인』, 민음사, 1977.
 김인환, 「20세기 한국 비평의 비판적 검토」, 『문학과 사회』, 1999 겨울.
 김종길, 『시론』, 탐구당, 1965.
 ----, 『진실과 언어』, 일지사, 1974.
 ----, 『시에 대하여』, 민음사, 1986.
 ----, 『시와 시인들』, 민음사, 1997.
 김형수, 「김종길 시론 연구」, 『한국현대시론사』, 모음사, 1992.
 유종호, 「영미 현대비평이 한국비평에 끼친 영향」 1971 초고, 『영미비평연

구』, 민음사, 1979.

최동호, 「심미적 이성의 견고성과 비평의식」, 『현대비평과 이론』, 1995 가을 · 겨울.

하회정, 「영미 신비평의 기본 관점과 한국적 수용의 두 양상」, 『한국 현대시론사 연구』, 문학과지성사, 1998.

T.S. 엘리엇, 이창배 역, 「전통과 개인의 재능」, 『엘리엇 선집』, 을유문화사, 1959.

<Abstract>

A Study of Consecutiveness of Kim, Jong-Gil's Critics

- Centering of Unfolding Process of Poetics

Oh, Hyung-Yup

This study was proceeded with purpose to examine side of consecutiveness that is latented into inside in aspect of extinction and transfiguration that Kim, Jong-Gil's the first collection of critic 「Poetics」 is detected phenomenally in process that is spread by the second collection of critic 「Truth and Language」.

In the first collection of critic, Kim, Jong-Gil consider carefully to reference item of 'objective existence of poetry' and 'separation of poetry and poet', and in the second collection of critic he shows a attitude to keep insisting 'objective existence of poetry' that this attitude is surfaced concretely 'inseparability of poetry and poet'.

On the other hand, Kim, Jong-Gil was internalizing 'tradition' and 'historical consciousness' that T.S. Eliot speaks from the first collection of critic, and draws it into dimension of 'subjecthood' or 'truth' that call 'integrity', and tries materializes this truth again in poetic language. Therefore Kim, Jong-Gil establishes main subjective poetics that can summarize 'poetic language of truth' by taking a serious view the way of language expression.

Finally, 'poetic language of truth' that is 'fusion of poetic truth and poetic language' that Kim, Jong-Gil takes a position in the second collection become synthesize reservoir looks like inconsistency and discord that quicken in the first collection are collected to actual one concept as several

poetric theories that 'tradition' and 'historical consciousness' of T.S. Eliot's concept as well as problem of 'objective existence of poetry' and 'separation(or inseparability) of poetry and poet'.

And this new estimation may be available in terms of critical intervention that have macroscopic inside measurement to improve problem of Korean poetry at that time such as other dimension, that is, abstractness of experiment poem or dichotomy of purity and participatory that this poetric theory emphasizes microscopic side such as only esthetic sense and correct literary style that existing study has read individual poetry delicately about Kim, Jong-Gil's criticism.

Key words: Kim, Jong-Gil, poetics, modernity, objective existence of poetry, separation(or inseparability) of poetry and poet, tradition, historical consciousness, poetic language of truth.